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국내 금융협회의 금융권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제정과 ISO 26000(사회적책임 국제표준), OECD 뇌물 방지협약 등 국제사회에서의 윤리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화 및 글로벌 경쟁체제로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 자금 횡령 등 윤리경영에 대한 관리 범위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준법·윤리경영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강화, 국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윤리적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윤리적 기업을 목표로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강화된 법적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교육 강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해 개정(2015.7.1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숙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회사별로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계약 및 매매명세신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 중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은 부서들을 재분류하여 연 12회에 걸쳐 총 15개 본부부서 임직원 및 모든 금융센터 RM(Retail Manager) 부지점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제공하는 Compliance Letter를 통해 동 내용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 계약 및 매매명세신고' 점검 대상 부서 중 주요 5개 부서를 방문 점검 및 현장지도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 대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부 유관부서 직원 총 150명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사내 전자 게시판 등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하여 임직원이 알아야 할 사례를 총 17회 게시하여 임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였습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신설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 강화에 맞춰 당사 임직원 스스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전 임직원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내용을 회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한 법규준수를 위해 불공정거래 방지 관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제도의 대상을 관련 부서의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임직원의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의 계좌까지 확대하여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체계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의 이념을 기업문화로 내재화하고, 기본원칙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여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여 업무 상의 규범적 행동력을 강화하고자 '임직원 행동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각 그룹사별 금융업의 특성과 업무 방식에 따라 개별적인 윤리 규범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경영 참여

신한금융그룹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기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윤리실천서약'을 실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대한 준수를 위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해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징구하는 윤리준법서약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서약서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매 분기 그룹사 내부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룹사 임직원 간 명절 선물수수를 금지하는 등 그룹 내 부당지원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경영 참여 성과

구분	활동	2015년 성과
신한은행	윤리실천서약서	전 임직원 시행 (상반기)
	윤리준법 자기점검	월 평균 12,940명 참여 (연 10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총 79명 참여 (상반기 2회)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점검	15개 부서 임직원 및 전 금융센터 RM 점검 (총 12회)
신한카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점검 시행 (상반기 1회)
	법규준수 자기진단	개인 2,810명 및 부서 80개 (본사/지점) 시행 (연 1회)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전 임직원 정보보호 서약서 갱신 및 BPR 처리를 통한 안전한 보관 관리
	정도영업실천서약	모집인 대상 교육 총 3,950명 (연 520회)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점검	전직원 시행
	보안서약서 및 준법서약서	전 임직원 대상 실시 (연 1회)
신한생명	컴플라이언스 교육(집합)	임직원 대상 (총 22회) 설계사 대상 (총 39회)
	내부통제관리 이행도 평가지표 운영	금융사고 예방 및 모럴헤저드 확산 방지를 위해 상무 이상 경영진의 성과보상체계에 반영
	자율점검 모니터링	252개 기관 대상, 총 597개 항목 관리 (매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점검	전 임직원 점검 및 매매 시 사전 신고 (월 1회)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준법서약서	전 임직원 입사 시 징구
	윤리준법 사이버 교육	전 임직원 윤리준법 사이버 교육 100% 참여

신한금융그룹 윤리경영 관리 조직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의식을 강화하고자 그룹사별로 각 업무 특성에 따른 윤리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그룹 차원의 윤리준법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는 직장 내 무례함 예방을 위한 팝업식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그룹사별로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각 업무 특성에 맞는 윤리 준법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각 부서의 준법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의 법규준수 강화교육, 정도영업 문화 확산 및 불원전판매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임직원 법규준수 자기진단을 통해 임직원 윤리준법 의식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월 3회 전 영업점에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료인 'AML(Anti Money Laundering) Letter'를 배포하여 임직원의 윤리적 업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은 사내 업무별 또는 직책별 교육과정 운영 시 윤리준법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임직원 대상 총 22회, 설계사 대상 총 39회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리더그룹의 윤리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거래내역 점검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신고제도

신한은행은 임직원의 법령과 내규, 윤리강령 등 규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Whistle Blowing)인 신한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 고객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채널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메일, 팩스, 영업점 봉합엽서 비치,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지킴이 운영지침을 통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보장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감사위원이 직접 접수, 조사 및 결과 조치 통보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부자 신고제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사내 게시판 홍보카툰 게시, 전 직원 대상 분기별 신한지킴이 안내메일 발송, 현장감사 강령 시 제도 전파 등의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내부 고발제도 운영과 함께 분기별 전직원 대상 신고제도 공지와 인트라넷 배너를 통해 임직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익명신고 기능 등을 통해 신분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불만, 고충 등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도 인트라넷으로 운영하던 신고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사용 대상 범위를 외부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익명 신고기능과 컴플라이언스 교육 시 신고제도 홍보 등 신고제도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한지킴이 포스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신한은행은 2015년 9월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개정에 따라 감사부에서 수행하는 자점검사와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준법지원부로 이관하여 감독당국 기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중 총 32회(약 2천명)에 걸쳐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예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한 인터넷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영업점 민원과 사고사례들을 만화로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등 사고예방 교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도입하였습니다. 2015년 본부부서/국외점포감사, 테마감사를 총 49회(목표대비 140% 초과) 실시하고, 영업점 현장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영업점 평균 미수검 기간을 약 7개월 단축하는 등 일선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구축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그룹 인권선언서'를 공표하여 임직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무례함 예방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 그룹 임직원이 시청하게 하는 등 직장 내 무례함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별도의 상담 채널을 운영하여 사후 관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신한금융그룹은 2016년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윤리준법 Q&A동영상 사례교육자료를 4월부터 매월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그룹사의 내부통제(윤리경영 포함) 이행 수준 향상을 위해 그룹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이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틀을 개발하고자 합니다.